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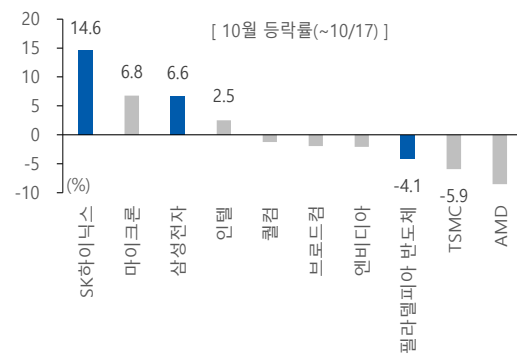


다시 살아난 바닥 기대

1. 수급 장세에서 부각된 외국인의 유입

- 9/29일부터 전일(10/18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2020년 11월(14거래일) 이후 거의 2년 만에 발생
-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비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순매수가 이어지며 증시 반등을 주도
- 반도체 업종에 순매수 집중하며 주가 반등 건인.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전반의 주가 반등이라기보다 대체로 국내기업 위주로 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국내기업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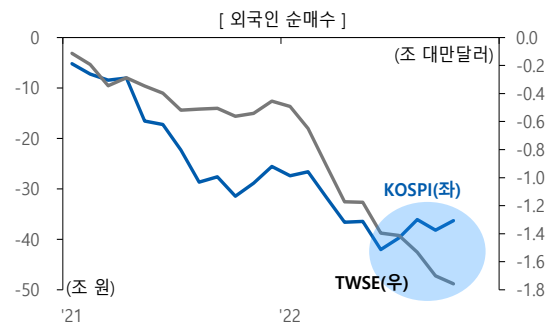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조금씩 살아나는 바닥에 대한 기대

-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를 순매수하는 배경이 바닥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는 판단
- 원화가치 약세로 인한 가격적 매력과 미중 갈등의 수혜 측면을 살펴 볼 필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한국 순매수 과정에서 대만증시는 순매도하는 경향
- 추가로 증안펀드 투입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 증시 상승요인은 아니겠으나,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인식과 과거 사례가 바닥 기대를 높일 전망

기대 한국과 대만의 외국인 순매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차별화되는 양상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수급장세에서 부각된 외국인의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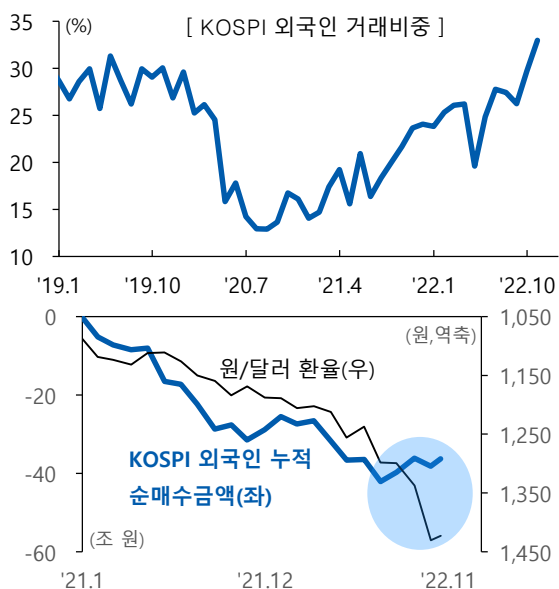
10월 들어 국내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동성을 나타내는 VKOSPI 지수는 22.9pt에 마감하며 9월말 20pt를 상향 돌파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꾸준한 외국인의 수급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일(10/18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KOSPI 현물에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다. 2020년 11월(14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후 거의 2년 만이다. 10월 월간 순매수 규모는 약 1.9조원으로, 지난 9월 -2.1조원을 거의 만회했다.

가장 많은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된 업종은 단연 반도체다. 외국인 투자자는 10월에만 삼성전자를 약 8,360억원, SK하이닉스를 약 7,544억원 순매수했다. 주가는 각각 +6.4%, +15.3% 상승하며 지수 반등을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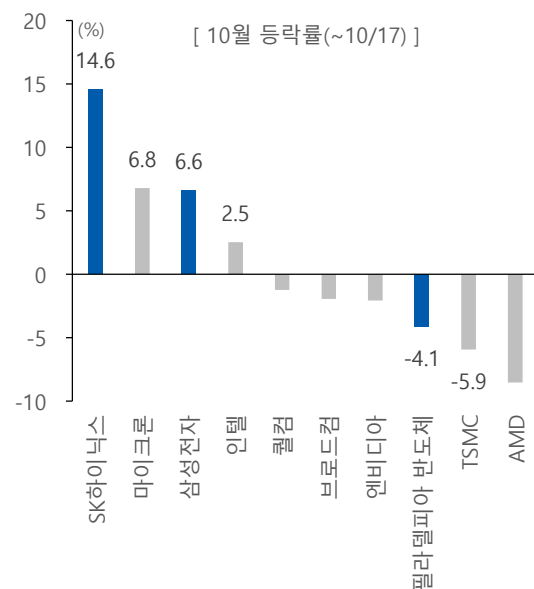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돋보인다. 예컨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월 월간으로 -4.1%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10/17일 기준).

[차트1] 외국인의 거래비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에서 9월 주춤했던 순매수가 재개



자료: Quantiwise,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국내기업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 10월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조금씩 살아나는 바닥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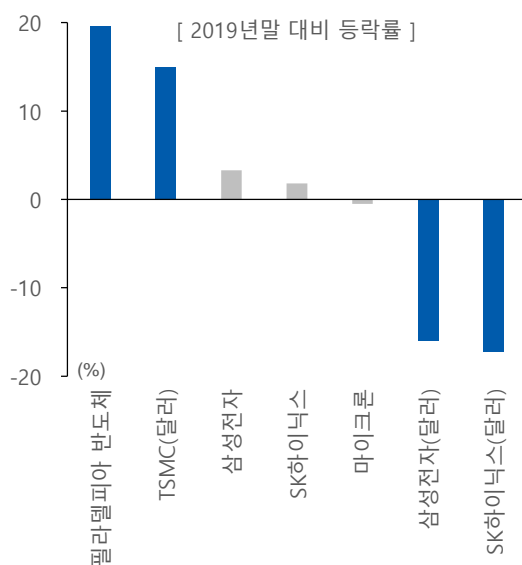
국내기업 위주의 반등으로 주가가 반도체 업황의 내년 턴어라운드를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단언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반도체를 순매수하는 배경을 생각해 볼 만하다. 크게 가격적 매력과 미중 갈등의 수혜 측면이다.

가격적 매력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9월 증시 급락과 함께 원/달러 급등(원화가치 하락)으로 가격 매력이 더욱 부각된 상황이다. 달러 기준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피어그룹인 마이크론보다 대폭 언더퍼폼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의 측면에서는 다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대중 수출제재 유예 조치나 애플의 중국 낸드 탑재 보류와 같은 경우의 수혜 기대다. 둘째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대만 리스크 점증과 그에 따른 한국의 반사수혜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는 대만증시에서 이달 들어 11거래일 중 7거래일을 순매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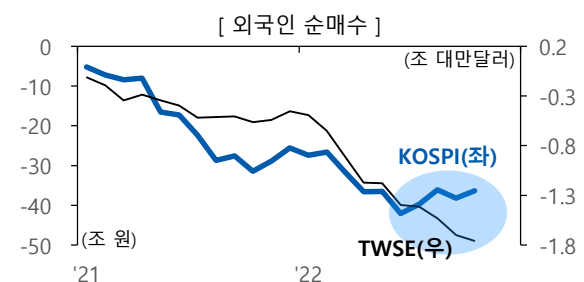
추가로 이달 중 재가동이 예정된 증안펀드에 대한 부분도 바닥 기대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증안펀드 자체가 증시를 끌어올릴 수는 없겠으나, 개입이 필요할 수준으로 인식된다는 점과 과거 사례에서 바닥이 멀리 있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차트3] 9월 원화가치 급락세로 인해 더욱 부각된 국내기업의 가격적 매력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한국과 대만의 외국인 순매수는 22년 7월 이후 차별화. 한편 증안펀드 발표 또는 집행 시기는 바닥 부근



증안펀드	증안펀드 이후 저점	비고
1990년 5월	1990년 9월	92년 재차 저점 경신
2003년 2월	2003년 3월	1개월 뒤 증시 저점
2008년 11월	2008년 11월	당월 증시 저점
2020년 3월	2020년 3월	증시 반등으로 미집행
2020년 10월	?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